

충북도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단호한 결단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승리의 길에 앞장서 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닷 달 동안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과 청주에서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치던 시민들, 제천·단양에서 먼 길 마다 않고 한걸음에 달려온 어르신들, 진천·음성·증평에서 일손 놓고 달려온 주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은과 옥천에서 들려온 “국민이 이긴다”는 함성, 영동과 괴산에서 굳게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깃발. 충주에서 울려 퍼진 “헌법 수호”의 목소리, 승리의 길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정권 내내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하다못해 국민을 향해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했고, 국회를 침탈했으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정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민주주의와 헌법을 되찾았으니 이제 국민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충북의 민생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자영업자, 실직의 위기로 내몰리는 중장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떠나는 청년, 허리띠 졸라맨 농민과 어르신들의 시름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비닐하우스를 지키는 농민의 땀을.

새벽 배송을 마치고도 다시 출근하는 청년의 노력을.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며 퇴근 후 알바에 나선 부모의 눈물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단단히 세워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청년, 농민, 어르신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갈라진 마음을 다시 잇고, 상처 입은 국민의 가슴을 치유할 때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위기의 시대를 ‘국민 모두의 회복’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당이 아니라 도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160만 충북도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오늘에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살맛 나는 내일을 열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이광희, 임호선, 이강일, 이연희, 송재봉 일동